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소개

1. 설치 배경 및 신설 사유

1) 설치배경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와 생태계의 운명이 위기를 맞아, 세계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의 목표를 세워 모든 나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고, 온실가스배출감축에 관한 2030년 국가목표량(NDC)을 40%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21.8)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였다. 국가의 주요계획과 개발사업 추진시 기후변화영향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와 산업구조의 전환과 공정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지구의 지정과 지원센터의 설립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1).

총괄	(비전) 2050 탄소중립+환경·경제의 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영향평가 탄소인지예산제도 배출권 목표관리 탄소중립 도시 지역에너지 전환 녹색건축, 교통 흡수원 CCUS 국제 감축사업 종합정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시 예측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지역 기후위기 대응 물 관리 녹색국토 농림수산 전환 적응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안전망 특별지구 사업전환 자산손실 최소화 국민참여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녹색금융 정보통신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그림 1. 탄소중립기본법 체계.

이러한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 전분야에 걸친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후환경 및 녹색전환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신속한 양성과 배출, 그리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2) 학과 신설 사유

기후변화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이라는 목표를 위해 요구되는 인력양성과 재교육을 기존의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다른 한편, 우리 대학은 ‘저탄소 녹색기반기술사업단’ (사업단장역임), ‘에너지인력

양성사업단’ (사업단장역임), ‘통합환경관리특성화대학원’ 으로 지정받는 등 환경 및 녹색기술분야에서, 또 환경법(환경법학회 회장 역임, IT법학BK사업)과 행정 분야에서 뛰어난 교수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기반하여 환경정책의 실무경험(전 환경부장관, 전 환경부사무관, 전 환경보건정책관)을 가진 교수 인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분야별 우수성을 융합하면, 기후 및 환경 관련한 융합인재 양성 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학과 소개 내용

1) 교육 목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 전 사회의 기후탄력성 확보, 녹색생활 실천문화 조성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행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 교육 내용과 구성

탄소중립학과는 사회과학,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등 전 분야를 포괄한 융합학문으로 ‘탄소중립학’ 이라는 단일 전공을 설치하였다. 교육과정은 탄소중립정책의 주요 4대 영역인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녹색전환과 기후관리를 포괄하고, 교육과정으로서 공통, 기초, 심화 및 응용으로 구분하여 총 38개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 학점 : 과목당 2학점
- 시간 : 1주 1학점당 2시간(1학점 50분), 1학기 15주 강의

영역 과정	온실가스감축	기후위기적응	녹색전환	기후관리
공통	기후변화의 이해 탄소중립정책론 탄소중립법			
기초	에너지학개론	기후환경생태학	기후경제학	탄소중립사회론
심화	산업전환론	기후정의론	기후산업론	기후거버넌스론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도시계획	순환경제론	탄소중립자치행정
	그린모빌리티	기후방재와 물관리	기후금융론	환경판례연구
	녹색건축학	기후탄력성 국토관리	기후재정론	녹색교육 및 문화
응용	탈탄소농축수산	생물다양성복원론	기후경영론	기후영향평가론
	탈탄소미래기술론	스마트그린도시설계	ESG론	전환정치론
	탄소흡수기법론	기후지리감시기술	탄소통상론	기후국제협력
		기후환경보건학		EU기후법

공통과정은 기후변화·탄소중립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기후변화의 이해」, 「탄소중립정책론」, 「탄소중립법」 으로 필수과목이다. 기초과정은 탄소중립정책의 4대 영역별로 「에너지학개론」, 「기후환경생태학」, 「기후경제학」, 「탄소중립사회론」 의 4개 과목으로 구성되며, 기초과정까지 수료하면 각 탄소중립 현장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심화 및 응용과정은,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분야와 관심에 따라 선택하여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실가스감축 분야에 「에너지학개론」, 「산업전환론」, 「신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녹색건축학」, 「탈탄소농축수산」, 「탈탄소미래기술론」, 「탄소흡수기법론」을 두었다. 기후위기적응 분야에는 「기후정의론」, 「탄소중립도시계획」, 「기후방재와 물관리」, 「기후탄력성 국토관리」, 「생물다양성복원론」, 「그마트그린도시설계」, 「기후지리감시기술」, 「기후환경보건학」을 두었다. 녹색전환 분야에는 「기후산업론」, 「순환경제론」, 「기후금융론」, 「기후재정론」, 「기후경영론」, 「ESG론」, 「탄소통상론」을 두었다. 기후관리분야에는 「기후거버넌스론」, 「탄소중립자치행정」, 「녹색교육 및 문화」, 「기후영향평가론」, 「탄소중립정보학」, 「전환정치론」, 「기후국제협력」, 「EU기후법」을 두었다.

3) 운영

탄소중립학은 다학제 융합과목으로 일부 과목, 주로 공통 및 기초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강의로 진행한다. 그러나 융합학문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교과목내의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관책임교수제’와 ‘과목교수회의’를 두고 운영한다.

전통적인 대면 강의 이외에 동영상 및 실시간화상강의와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한 플립러닝 등 다양한 교육매체와 방법을 활용한다.

4) 교과목 설명

가) 공통 과정

기후변화의 이해(Understanding Climate Change) [가C081]

기후위기관 무엇인가? 기후위기의 대응방안, 기후위기 대응 정책, 국제동향 등 탄소중립학의 기본 개념과 필수요소에 대한 기초입문. 탄소중립을 위한 4대 분야, 탄소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과 녹색전환에 대한 개괄적 입문. 각 영역과 분야가 융합하여 팀강의로 진행.

탄소중립정책론 (Introduction to Carbon Neutral Policy) [가C082]

탄소중립정책의 오버뷰. 녹색성장 기본계획, 그린뉴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인벤토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대한민국 및 해외의 탄소중립정책에 관한 총론.

탄소중립법 (Acts for Carbon Neutrality) [가C08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등임. 탄소중립기본법은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는 법률. 더불어 환경 및 산업 사회각 분야의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하여 여러 개별법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도 학습.

나) 기초 과정

에너지학개론 (Introduction to Energy) [나M081]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의 고갈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환경오염 문제, 특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심각한 위협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에너지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전 세계적인 화두.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에너지원인 전기, 화석연료, 지열, 핵, 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와 화학에너지에 대한 체계적 학습을 하여 탄소중립·녹색전환을 위한 에너지원에 대하여 총괄적인 학습.

기후환경생태학 (Climate Environmental Ecology) [나T081]

지구의 생태계는 탄소의 배출과 흡수, 순환의 균형을 맞추어 옴.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과다배출로 초래된 기후위기는 인간사회 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 탄소순환의 균형을 상실하고 인간과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 기후환경생태학은 이에 대응한 생태계보전을 다루며 특히, 탄소흡수와 생태다양성보존의 주요 수단인 산림과 도시숲 조성, 녹색국토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기후경제학 (Climate Economics) [나T082]

기후경제는 자연과 공존하면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구조. 기후위기 시대의 경제는 성장과 환경오염의 탈동조화(decoupling) 차원을 넘어 탄소중립 경제가 요구. 녹색금융과 녹색산업분류체계, 녹색재정, 기업의 ESG와 녹색경영, 자원순환경제 등 경제산업 전반의 녹색전환을 위한 필수요소를 포함한 총론적인 학습.

탄소중립사회론 (Carbon Neutral Sociology) [나G081]

기후위기에 적응하며 전 사회와 산업의 녹색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국제협력 등에 관한 전반적 학습.

다) 심화 과정

산업전환론 (Industrial Transformation) [다M021]

산업분야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 화석연료기반의 산업생태계와 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자원순환의 확대, 탄소중립 기술개발, 국제 공급망 안정화 등이 필요. 이를 위한 R&D, 세제 및 금융지원정책,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하여 학습.

신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다M041]

본 강의에서는 탄소중립·녹색전환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원리를 탐구하고 현재의 기술 개발 동향 및 전망을 다룸. 특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태양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등에 응용되고 있는 기술에 관하여 작동원리 및 그에 수반되는 전기화학적, 열적, 화학적, 기계적 특성과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을 학습.

그린모빌리티 (Green Mobility) [다M041]

녹색모빌리티는 석유중심의 수송체계가 아닌 전기·수소차 등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흡수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그리고 IT와 AI 기술을 접목한 미래의 모빌리티공학.

녹색건축학 (Green Architecture) [다M042]

녹색건축학은 기후위기라는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서의 건축학. 에너지부하 저감, 고효율 에너지설비(energy), 자원재활용, 환경공해 저감 및 탄소흡수기술 등을 적용하여 설계, 건설, 유지·관리되고, 수명이 다한 후 해체 시에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 이와 관련된 기술 및 정책동향, 사례 등을 학습.

탈탄소농축수산 (Zero-carbon Agriculture and Fishery) [다M043]

식량과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인 농축수산분야의 탈탄소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전환, 저탄소 영농법 확대, 먹거리 선순환체계의 구축,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이와 관련된 기술 및 정책 동향, 사례 등을 학습.

기후정의론 (Climate Justice) [다A021]

기후위기의 영향은 국가간, 지역간, 계층간에 불평등하게 취약한 영역에서 더 심각.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 정치·사회적 및 생물학적 취약계층의 환경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기후탄력성을 회복·증진에 관한 정책을 다룸. 또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와,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등에 관한 학습.

탄소중립도시계획론 (Carbon Neutral Urban Planning) [다A022]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시계획 측면의 계획기법과 전략, 공간위계와 기상재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탐색, 도시계획기법의 적용실태에 대한 사례연구 등을 학습.

기후방재와 물관리 (Climate Disaster Management and Water Control) [다A041]

기후방재학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기상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교육과정. 기후재난에 관한 지식과 방재계획, 법제도, 정책, 조직, 기후재난위험의 평가, 정보통신 기술 등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 또한 댐, 하천, 상·하수도 등 물관리 시스템의 기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지식, 기술 및 정책에 대하여

학습.

기후탄력성 국토관리 (Climate Resilience Land and Forest) 다A042

산림과 습지는 중요한 탄소흡수원. 국토면적의 63%인 산림의 생태복원 및 도시숲과 훼손녹지의 복원, 유휴토지조림 등 신류조림과 재조림의 확대, 수종갱신, 연안 습지의 보존 등을 통한 탄소흡수력을 높일 필요. 이와 관련한 기술 및 정책 동향, 사례 등을 학습.

생물다양성복원론 (Biodiversity Restoration Theory) 다A051

생물다양성은 지구의 자연생태계의 균형과 보전에서 핵심적인 요소. 무분별하고 과도한 인간활동, 도시화, 산업화는 빠른 속도로 여러 생물종의 멸종위기를 초래하고, 인류와 지구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기후변화는 멸종위기를 가중. 기후위기시대의 생물다양성 실태, 원인과 문제점 및 생물다양성 복원대책에 관하여 학습.

기후산업론 (Climate Industry Theory) 다T021

산업분야는 온실가스배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탄소중립감축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분야.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CCS, 수소, 전기화 등 주요 기술요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한 산업기술 및 정책 동향 등을 학습.

순환경제론 (Circular Economy) 다T022

환경·자원의 순환경제론은 원재료의 소모, 물과 대기의 오염,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고려한 과학기술적 결정, 생산자책임제도와 같은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윤리적 소비를 포함한 순환사회의 문화를 포괄. 본 과목에서는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할 자원 순환의 관계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 환경,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총괄적인 내용을 학습.

기후금융론 (Climate Finance) 다T023

기후금융은 경제활동 전반에서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기후환경위기를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투자함으로써 녹색전환을 지원, 기후환경위기를 악화시키는 활동에 자금공급차단을 위해 녹색산업분류체계를 포함한 자율적인 심사와 감시체계 구축하여, 변화된 산업환경과 탄소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원 발굴·지원하는 것. 이와 관련된 금융이론과 동향, 국내외 제도와 정책을 학습.

기후재정론 (Climate Public Finance) 다T024

기후위기시대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의 역할이 중요. 탄소중립을 위한 재정 및 조세정책의 원칙과 모델, 재정수단과 구조, 다양한 환경관련 세계

및 과세 유형, 해외 및 국내 사례 등을 학습.

기후경영론 (Climate Cooperate Management) 다T025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의 기업환경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협약의 증가와 규제강화, 투자자들의 환경적합성요구, 소비자들의 친환경제품 선호라는 시장조건, 기업경쟁력에서는 환경과 사회적 가치의 확보가 필수적. 기후경영론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다양한 기후환경리스크의 분석보고 및 관리, 환경경영정보시스템의 마련과 검증, 규제대응과 선제적 조치 등의 핵심적 요소를 다룸.

기후거버넌스론 (Climate Governance) 다G021

참여민주주의 사회체계에서 국가, 시장과 함께 시민사회는 공공정책 거버넌스의 주체. 시민사회는 현대사회의 다원화된 공공의 이해와 과제에 따라 분화발전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과 전 산업 및 사회분야의 녹색전환을 견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거버넌스의 핵심주체들의 권리, 역할과 갈등, 조정과 효율적 이행방안 등에 대해 다룸.

탄소중립자치행정 (Carbon-neutral Local Administration) 다G022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현실에 구현하는 주체로서 다양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에 기여. 지방자치행정의 탄소중립정책실현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과 행정적 법적 재정적 기반과 과제 등에 대하여 학습.

기후환경판례연구 (Court Case Study on Climate and Environment) 다G023

환경 관련 정책에 대한 각종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본 교과목은 기후변화와 연관된 대기환경 분쟁사례, 배출권 거래, 예방적 환경정책 수단인 환경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녹색교육 및 문화 (Green Education and Culture) 다G031

녹색교육은 생태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거시적 및 미시적 대안과 실천에 대한 지식향상과 문제해결 능력의 함양이 목적. 탄소중립정책과 동물생명존중, 과도한육식거부, 플라스틱등 폐기물감소와 순환경제의 실현, 저탄소고효율에너지생활, 정의로운 전환 등 녹색생활 실천문화를 다룸.

기후영향평가론 (Climate Impact Assessment) 다G041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자(「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소관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의무화. 이에 필요한 기후영향평가의 개념, 목표와 방법론, 사례를 학습한다.

탄소중립정보학 (Carbon Neutral Information Technology) 다G042

산업체 및 모든 기관들의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인벤토리를 체계적 작성·보고·관리하는 것이 필수적. 기초단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이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협약을 통해 국가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정보기술과 시스템, 통계작성과 관리가 필요.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룸.

라) 응용 과정

탈탄소미래기술론 (Zero-carbon Future Technology) 라M041

무탄소전기생산 및 신재생에너지개발과 같은 핵심적 기술과, 수송, 산업, 건축분야의 전기·수소화, 디지털기술과 연계한 에너지 효율향상, 원료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극대화하고 에너지 원료투입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기술, 배출 온실가스 흡수처리기술 등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미래기술 개발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학습.

탄수흡수기법론 (Carbon Absorption Technology) 라M042

탄소흡수량은 해양, 습지, 산림의 순으로 높으며, 습지는 지구표면의 6%로 탄소 40% 이상을 저장하고 온도와 습도 등 국지적인 기후조절기능으로 기후변화완화에 중요한 역할. 습지의 복원 및 보존과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증진하는 기술개발, 탄소흡수원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 온실가스 통계 제고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확대 등에 관해 학습.

스마트그린도시설계 (Smart Eco-city Planning) 라A021

기후위기는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를 급속하게 높임. 도시는 자연의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탄력성을 극대화하며 IoT 등 최신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그린생태도시로 전환될 필요. 해외사례와 함께 스마트그린도시설계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해 학습.

기후지리감시기술 (Geo-climate Information Technology) 라A041

기후위기와 지구환경 시스템 사이의 상호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예

측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활용이 필요. 기후기상정보, 지구생태계 및 환경시스템 정보 및 지리정보가 통합적으로 연계 분석 배포되어 효과적 감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이해.

기후환경보건학 (Climate and Environmental Health) [\[라A061\]](#)

기후환경 변화와 기후재난은 건강에 큰 영향을 주며, 기존질병을 더 악화시키며, 코로나와 같은 신종감염병을 창궐하게 함.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영향은 지역적, 정치사회적, 생물학적인 취약성에 기반하여 불평등하게 나타남. 기후건강취약성 지표, 예방적 기후환경보건정책과 관리에 대하여 학습.

ESG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Theory) [\[라T021\]](#)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3가지 핵심요소. 환경요소로 온실가스, 탄소배출에 대한 대응, 폐기물의 양, 처리의 건전성 및 재활용 등이, 사회적 책임요소로 인재풀의 다양성, 근로자의 인권, 소비자 권리보호,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등이, 기업지배구조로는 의사결정과정과 기업구조, 인사와 경영정책 등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판단. 관련 내용과 지속가능경영 및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등에 관해 학습.

탄소통상론 (Carbon Trade Theory) [\[라T022\]](#)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세계경제와 무역에도 온실가스배출량이 기준이 되는 탄소중립 세계체제가 형성. 각국에서 탄소세도입과 EU탄소국경조정세(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 탄소통상장벽이 빠르게 설치되려는 추세. 관련된 탄소배출권거래제, 국내 주요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한 제품의 탄소집약도 감소 등 내용을 다룸.

전환정치론 (Transition Politics) [\[라G021\]](#)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을 계기로 사회 전환에 관하여 다양한 정치적 경로가 제시. 크게는 기술혁신과 시장 메커니즘을 토대로 탈동조화, 녹색자본주의의 길과 기후위기로 가중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탈성장 생태사회주의로 구분. 두 경로는 상호 경쟁, 분화하면서 연대. 관련한 이론, 정책, 대안 등에 대해 학습.

기후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limate Change) [\[라G022\]](#)

기후변화 해결과 탄소중립 달성에는 높은 수준의 국제협력이 요구. 국제협력의 두 가지의 지향점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선진국·강대국 간의 ‘감축’ 협력과, 기후변화의 책임은 적지만 피해는 큰 개도국과 관련된 ‘적응’ 협력. 본 과목에서는 정부의 국제협력에서 ‘녹색 전환 선도’ 전략과 국제사회협력 강화, 전략적 그린

뉴딜 ODA 추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강화를 포함한 기후국제협력의 동향과 전망에 관해 학습.

EU 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 라G023

EU 기후법은 EU의 2050 기후 중립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도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실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또한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의 설정, 단계별 일정의 제시,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 기후 중립 목표에서 벗어날 경우의 메커니즘을 명시함으로써, 기후 중립 목표 달성 및 필요한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 EU 기후법은 ‘법 위의 법’으로서 향후 EU 규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각 산업별로 적절한 사업전략 대책이 필요.